

| 시론 |

우리 시대 프로페셔널을 생각한다



김용희
작가·평택대 교수

어떤 경지에 오르는 힘들다. 오죽하면 '개그콘서트' 김병만 선생은 16년이나 같은 일을 계속해 경지에 올랐겠는가. 달인 김병만 선생은 말한다. "16년 동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마!" 그렇다.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일은 힘들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경지를 지켜나가는 자기 고투다. 얼마 전 가수 이소라 씨가 콘서트 공연을 끝낼 쯤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객에게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 관객들은 팬클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객에게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 팬클럽은 괜찮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티켓 환불을 해주겠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가수 이소라 환불은 자기와의 싸움

매우 이례적이다. 고객서비스 제도가 활발해지는 선진화된 사회이긴 하지만 이런 '자발적 리콜'은 흔치 않다. 이 씨의 노래는 관객 귀에 의해 이미 소비된 뒤였다. 그렇다면 이 씨가 싸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 대결하고 있다. 누군가는 쇼에 불과하다고 이죽거릴 수 있다. 리콜

도 또 다른 상업적 전략이라고 조롱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부정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점, 자기 갱신을 위해 스스로를 던졌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 장인정신을 떠올려 본다. 프로페셔널 정신을 떠올려 본다.

프로페셔널 정신은 우리 시대가 내세우는 아이콘이다. 사람은 모두 프로가 되길 원한다.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일단 프로가 되고 나면 프로페셔널의 권위에 의지해 자기 타협이 이뤄진다. 대중은 권위에 압도돼 프로에게 손쉽게 열광하고 손쉽게 숭배를 바친다.

프로는 스스로의 권위에 취한다. 대중의 의례적인 열광에 도취하고 예전의 명성에 도취한다. 자기 게으름과 자기 방기에 빠진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뭔가를 더 성취하고 기록하는 데서 생가지 않는다. 끝없는 자기 부정, 자기 검열, 엄격할 만큼 계속하는 자기 연마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는 아직도 매주 레슨을 받는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여전히 연습벌레다.

프로페셔널이 위대한 예술가나 천재에게만 속하는 항목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 분야에서 고수를 본다.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잘도 걸어가는 보따리장수 아줌마, 자신의 어깨높이보다 훨씬 높게 쌓은 연탄을 지고 오르막을 오르는 연탄배달부, 한 손으로 탁 밥알을 쥐

었다 하면 백 알을 쥐는 초밥왕, 생활 속의 고수와 프로페셔널은 곳곳에 있다.

다만 사람들은 스승의 회초리를 맞아가며 프로페셔널의 기본기를 연마하기보다 다른 누구를 비난하기를 손쉽게 한다. 누구 탓하기를 밥 먹듯 한다. 성공한 누군가를 시샘하고 불공평한 게임이었다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다른 이의 프로페셔널을 인정하고 자신의 프로페셔널을 끝없이 갱신하려는 자다.

우리 모두 남탓 말고 끝없는 갱신을

사람은 제각각의 '달란트'를 갖고 있다. 천재성이 아니면 조그마한 재능이라도, 재능이 아니라면 조그마한 손재주나 솜씨라도, 신은 공평하다. 자기 자신을 연마하기는 커녕 다른 누군가의 프로페셔널을 욕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능력도 있다.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진짜인 듯이 보이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대중을 속일지는 몰라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대중을 단시간 속일지 몰라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이미지와 광고가 과장된 우상과 허위의 권위를 만들어 내는 시대다. 자신이 지은 집을 허물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자기를 철저히 점검하는 정신, '진짜'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자기반성 능력, 프로페셔널 정신이 아닐까.

| 과학세상 |

신종플루 독성 낮지만 오래갈것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신종 인플루엔자(플루)A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다. 감염자는 증가하고 사망자도 계속 나온다. 다행이라면 당초 우려보다 독성이 낮다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성분이 유전정보전달물질(RNA)인 유전자(DNA)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DNA 바이러스로는 치사율이 높고 수천 년 전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도 기록된 천연두 바이러스,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다. RNA를 게놈 성분으로 갖는 바이러스에는 지난 40여 년간 신 변종으로 등장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종류가 많다. 우리 귀에 익숙한 에볼라, 에이즈,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미국형 유행성출혈열을 유발한 신종브레, 말레이시아에서 뇌염으로 수백 명을 숨지게 만든 니파 바이러스가 이에 속한다. 이번에 나온 변종 플루는 또 쫄까.

RNA를 게놈으로 갖는 상당수의 바이러스는 유전정보인 게놈을 복제할 때 실수, 즉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다. 그 빈도가 아주 높

아 DNA를 게놈으로 가지는 바이러스보다 10만에서 100만 배 이상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한다. 고등동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새끼는 사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문제점을 안고 살아간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더는 증식이 불가능하여 소멸된다. 극소수는 더욱 뛰어난 능력이 생겨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새로 생긴 변종 바이러스는 생존 능력이 우수하여 다른 종을 압도하고 집단을 장악한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핵심이론인 자연도태, 적자생존이 가장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이다. 플루 바이러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는 위와 같이 유전정보의 미세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작은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게놈의 큰 부분이 통째로 대체되는 '대변형'이다.

문제가 된 A형 플루는 유전정보가 1개 가닥이 아니라 8개의 서로 독립된 가닥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가닥이 가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가닥과 섞여버린다. 예를 들어 돼지 바이러스에 있는 H라는 게놈 가닥의 전체 혹은 일부가 인간 바이러스의 H 가닥과 대체된다. 즉 대부분은 인간 바이러스의 게놈 가닥인데 한 가닥이 돼지의 게놈 가닥으

로 바뀐다는 얘기다. 변종은 때로는 맹목성을 갖는데 1918년 당시 5000만 명을 죽였다고 몰았던 플루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가히 괴물급이다. 게놈의 3분의 1은 북미 돼지 바이러스에서, 또 다른 3분의 1은 북미 돼지 바이러스에서, 6분의 1은 사람에서, 나머지 6분의 1은 유라시아 돼지 쪽에서 왔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플루 바이러스와도 다르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감염된 농부가 변종 바이러스를 돼지에 전파했다고 생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조류, 돼지, 인간 사이를 중형무진으로 다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섬뜩한 경우이다.

천연두와 폴리오(소위 소아마비)는 세계 보건기구가 해당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완전 퇴치했거나 곧 그리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성공한 경우이다. 플루 바이러스도 박멸이 가능할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퇴치가 가능했던 바이러스는 모두 인간 이외에는 서식지가 없고 변종이 거의 없었다. 여러 종류의 동물을 감염시키는 데다 돌연변이 빈도가 높고 '게놈 섞기'까지 가능한 플루는 사람 간의 물론 사람과 동물 간 감염도 쉬우니 플루와의 전쟁은 충격과 지루함이 뒤섞이는 장기전으로 예상된다.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우리 문화의 우수성 알리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조선왕릉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개성에 있는 조선왕릉 27기를 제외하고 남한에 있는 40기 전체가 등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조선왕릉을 심사(實査)하고 돌아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네스코 측에 '등재 권고'를 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지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실사 결과가 그대로 수용될 것 같다.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온 인류를 위해 보호되고 후손에게 전수돼야 할 만큼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한 문화재를 말한다. 작년 7월 현재 141개국 878건(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한국은 7건의 세계문화유산과 1건의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왕릉은 9번째가 된다. 중국은 세계유산 35건을, 일본은 14건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왕릉이 위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은 주변의 자연과 인공을 잘 조화시킨 조소들의 탁월한 지혜 덕분이다. 조선왕릉을 실사한 각국 전문가들은 독특한 건축 및 조경 양식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조선왕릉처럼 한 왕조의 무

덤이 집중돼 있으면서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것이라며 가치를 인정했다. 외형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 밑바탕을 이루는 유교적 풍수적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조선왕릉에 농축돼 있는 한국의 미(美)와 전통의 독창성, 우수성을 세계가 높이 산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왕릉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수도권이 급속히 개발되면서 왕릉 주변을 고층 건물이 둘러싸버린 곳이 적지 않다. 왕릉 경내에도 당초 없었던 연못을 파놓아 원형을 파괴한 곳도 있다. 더는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보존하면서 세심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학계의 왕릉 연구도 미흡하다. 외국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감탄하는 조선왕릉의 미적 가치에 정작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학술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조선왕릉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귀중한 자산이자 관광 자원이다.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왕릉 이외에도 우리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 홍보에 나설 일이다.

판사들 집단행동 삼가고, 申 대법관 직무에 충실하길

이영훈 대법원장은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엄중 경고'를 했다. 이 대법원장은 발표문에서 "그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절차에 넘기지 않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동시에 일부 판사의 징계 요구를 고려해 '엄중'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타협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받은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징계에 못지않은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반발하는 일부 판사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 일반직 노조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신중한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고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首長)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일부 법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온 후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감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이 정도면 진중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사태를 독자정권 시절의 '사법파동' 같은 사태로 확산시켜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한 부장판사는 "개개인인 헌법기관인 법관의 집단행동은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 독립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였을 때나 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옳은 견해라고 본다.

이번 사안으로 신 대법관이 물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법관의 신분보장이 무너져 사법권 독립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다. 대법관의 신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 대법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법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사들은 이제 집단행동을 삼가고,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대법원장의 호소에 호응하기를 바란다. 이 대법원장도 판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언급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校長에게 권한 더 쥐 학교 自律性 높여야

올해 초 지역별 학교성취도 평가 결과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부분적으로 공개된 데 이어 내년부턴 학교별 학업 성취도와 진학률이 모두 공개된다. 서울에선 고교선택제 시행이 예고돼 있다. 내주 발표될 학교자율화 방안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옮겨왔던 각종 규제를 풀고 교육관련 권한을 일선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비전과 역량이 기업 사활에 결정적 역할을 하듯, 학교장이 어떤 교육철학과 비전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학교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 대과(大過)없이 임기만 채우면 되던 학교장들이 갑자기 몰아닥치게 될 교육개혁 쓰나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학교를 개혁할 최소한의 권한도 주지 않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병사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고 전장에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게 승진과 급여도 보장해주고 무능하고 나태한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권을 교장이 가져야 한다. 우선 허울뿐인 교원성과급제를 손질해야 한다. 교원성과급

제는 교사 간 생산성 경쟁을 유도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본질이 실종되고 교직사회의 갈등을 키우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대 9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성과급을 모두 모아서 n분의 1로 나누거나 근무연한에 따라 돌아가며 최고 등급을 받는 식으로 성과급제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더욱이 지금은 성과급을 학교에 일괄 지급해 교원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배분토록 하고 있으나 성과급 총액부터 학교에 따라 차등 배분해 교사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학교자율화가 추진되면 교장들은 우수교사를 20%까지 초빙하고 과목별 수업시수(時數)를 20% 증감하는 재량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교장이 우수한 교사를 데려오거나 능력 없는 교사를 내보내려 해도 교사 5년 순환근무제에 묶여 꺾일 수 없다. 우수한 교사, 평판 좋은 교사는 승진 인센티브를 주어서 데려오고 무능한 교사는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내보낼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회통과가 무산된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의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 성실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만 한국 교육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방송개혁 시민연대 방송백서 1탄 MBC·KBS 전현직 방송인들의 충격고백

- **좌파시대의 개막**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와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방송 장악의 실제 및 선거에 불법 이용된 방송 사례, 좌파 이데올로기 전파자로서의 이념 선동 실제 프로그램 예, 편파 조작방송 프로그램 및 그 배후 공개 등
- **언론권, 미디어오늘, 언개련, MBC 좌파언론 커넥션**
이승복 오보 사건에 숨겨진 집권층과 좌파 언론, 시민단체, 어용 방송의 조작 음모
- **좌파방송 10년, 온 국민을 향한 좌편향 사상교육**
좌파 정권시 국민을 상대로 행하여진 좌편향 프로그램을 시사, 교양, 드라마 장르별 좌편향성 분석 및 증빙 공개
- **방송법 개정 반대에 숨겨진 노조방송의 실제**
방송법에 관한 현직 방송인의 실태조사 자료 공개 및 노조방송의 실상 공개 (노조의 방송 장악 과정 인적구성, 인사문제, 복지제도, 노사협약 등)
- **방송노조 비리 및 부도덕성**
방송노조의 관행적 비리, 방송의 아성속에 가려진 독직, 비리, 성추문 등 비도덕성

2009. 5. 7. 방송개혁시민연대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일시 : 2009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출판보고회가 열립니다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방송개혁시민연대(이하 방개혁)'가 오는 14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출판보고회 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충격보고서는 방송개혁을 거부하며 현 정부퇴진을 외치는 언론노조와 방송노조의 음모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개혁'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준비한 것이다.

이번 출판의 목적은 좌파세력집권시 온갖 특권적 아성을 쌓고 귀족적 안락함을 누려온 공중파노조의 추악한 비리와 구정권의 야합을 오직 사실에 근거해 파헤침으로서 언론노조의 이면과 그 실상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알리고자 함이다.



구입 홈페이지(www.cnmr.kr)를 통해 구입신청 가능
문의 전화 (02)734-6507 / 홈페이지 www.cnmr.kr